

설

명절 예배 순서지

목 도 인도자

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
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
(이사야 43:18-19)

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

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
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

믿음이란?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함께

“예수 우리 왕이여(복69장)”
예수 우리 왕이여 이 곳에 오셔서
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
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
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

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

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. 아멘.

기 도 인도자

말씀봉독 잠언 16장 1,3,9절 다함께

1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
2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
3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거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

설 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인도자

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성령께서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.
나아가 2025년 새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.

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. 물론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모로 계획도 잘 세워야 하고 그 일들에 성실하게 임해야만 합니다.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 일의 결국은 내가 혹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크건 작건 어떤 일이든 주님이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셔야 함을,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믿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.

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"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" 라고 하였습니다.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"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, 아무것도 할 수 없다" 라는 것입니다. 새해,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, 무엇이든 기도로 주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.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, 사람을 붙여 주시고, 가장 좋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.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먼저 기도로 주께 아뢰고,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.

무엇보다 언제나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이길 소망합니다. 이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,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,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매일 매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박고, 나를 포기하는 우리이기 바랍니다.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며,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아버지를 위해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.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, 주의 나라와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.

2025년 새해,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 안에서 참 자유와 승리를 누리고,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올려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.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.
하나님이 하셔! 아멘!

찬 송

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

다함께

- 1 주와 같이 길가는것 즐거운일 아닌가
우리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
-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
주의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
-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
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같이 가겠네
-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
들려 올라 갈 때 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

(후렴)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
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

주기도문

다함께

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, 나라이 임하옵시며,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
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,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,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,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